

# 풍광에 반한 관광객 입맛까지 사로잡는다

### 고흥군, 서대정식·장어요리·삼치탕수 등 9가지 대표먹거리 레시피 전수 11월까지 조리실습·인테리어·온라인 홍보 등 업소별 맞춤 컨설팅 진행

고흥군이 지역 대표 먹거리 레시피를 꼼꼼히 전수한다. 지난해 개발한 서대정식·갈비탕·삼치정식·장어요리·삼치커블렛 등 9가지 요리의 손맛을 점검해 보완하는 것이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한 지역 대표 음식과 삼치요리의 조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종합 컨설팅을 추진한다. 메뉴를 전수받아 판매 중인 지역 음식점 17개소가 대상이다.

고흥 대표 음식은 고흥서대정식, 고흥갈비탕, 나

로도삼치정식, 녹동장어요리 등 4가지이며, 삼치요리는 삼치고추장조림, 삼치간장조림, 삼치탕수, 삼치어탕, 삼치커블렛 등 5가지다. 이 음식은 봉래면 나로도삼치거리 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고흥군은 대표 음식 취급 음식점과 삼치요리 전문점들이 보다 완벽한 레시피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한 뒤 레시피 보완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컨설팅은 운영 현황 파악 및 분석, 업소별 방문



고흥 대표 음식인 '삼치정식'

1대 1 조리 실습 교육, 인테리어 및 정리·수납 개선 방안 제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등이다. 오는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맛을 좌우하는 수제 비법 소스와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찾아 혼잡할 경우를 대비한 대용량 레시피 교육, 식육을 자극하는 삼차림 비법, 메뉴와 조리방법에 대한 전문가 노하우 전수 등 대표 음식의 맛 향상을 위한 조리실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2020 고흥 방문의 해'와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꼼꼼한 레시피 전수를 통해 고흥 대표 음식과 삼치요리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광양제철초, 코로나19에 운동장서 '드라이브 인' 입학식

### 온라인 수업 안타까워 개최

광양제철초등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드라이브 인(Drive-in)' 입학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21일 광양제철초등학교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학교 운동장에서 신입생 43명의 입학식이 열렸다. '드라이브 인' 입학식이 진행돼 부모와 학생들은 차 안에서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자 광양교육교육장, 서동용 국회의원 당선자, 김길용 전남도의원, 송재전·최한국 광양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입학 축하했다.

드라이브 인(Drive-in)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식으로 운동장에 반별로 주차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행됐다.

학부모와 신입생은 차 유리창에 이름표를 붙이고, 입학식 안내장, 학습 교재를 받았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담임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 축하 풍선은 사이드미러에 달아주는 이벤트도 했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교사는 흰 장갑을 착용해 최대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지를 보였다.



광양제철초등학교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와 아이가 차량에 탑승한 가운데 드라이브 인 신입생 입학식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초 제공>

드라이브 인 입학식에 참석한 내빈과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서 축하했다.

입학식은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돌봄 선생님 소개와 교장 선생님의 입학 축하 격려말, 1학년

신입생 대표 학생의 약속문 낭독과 5, 6학년의 관악 6중주 축하 연주도 이어졌다.

임종현 교장은 "1학년 신입생이 온라인 개학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데다 자신이 초등학생이 됐다

는 자부심과 긍청초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100% 동의를 거쳐 드라이브 인(Drive-in) 입학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 특산물 토란 간편하게 먹는다

### 군, 가정간편식 토란탕 개발 착수

곡성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토란탕 개발에 나섰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토란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가정간편식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전라도 표준식, 간편·현대식 등 3가지 레시피를 제시하고 직접 선보여 시식과 관능평가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1가지 레시피를 보완한 후 표준화해 향후 토란탕을 가정간편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고 건강간 집밥 선호 트렌트에 맞춰 건강식인 곡성 토란탕을 대우기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전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토란탕 간편식이 토란 소비를 촉진해 토란 재배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도시재생사업 주민 제안 공모 구례읍 29일까지 신청 접수

구례군은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례군은 국토부가 공모한 134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인 구례읍사무소를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1인 창업공간인 세포마켓과 다문화점포 등 시대에 대응하는 카멜레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구례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스마트안심거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 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기반 마련이 목적이 다.

공모 분야는 도시재생지역 내 생활환경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례군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례읍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꽃으로 희망 나뉘요"...순천시, 튜립 알뿌리 분양

순천시만정원서 워킹 스루로 진행

순천시는 21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와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으로 '튬립 알뿌리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 쓰인 튜립 알뿌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식재했다가 개화기가 끝나고 캐낸 것으로, 순천시는 매년 시민들에게 튜립 알뿌리를 분양하고

있다.

튬립 알뿌리를 분양받은 한 시민은 "튬립 알뿌리를 심으며 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며 "잘 심어 내년에 예쁜 튬립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식물이 주는 긍정효과도 매우 높다"며 "이번에 나는 튬립 알뿌리가 순천의 거리와 가정마다 피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정원 도시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